

“사기·불법판매 급증”...명절 앞두고 중고거래 주의보

선물세트·숙박권 판매 성행 승차권 등 거래금지 품목도 외부사이트 유도 ‘피싱’ 주의 “가품 여부 등 꼼꼼한 확인을”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호텔 숙박권 등을 사고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판매자는 명절 용품 거래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고, 구매자는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구입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거래 행위를 ‘명절테크(명절선물+재테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사고팔게 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의 광주 지역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일, 참치, 햄, 김, 조

미료 등 식품세트부터 화장품, 샴푸, 마사지기 등 생활용품까지 종류도 다양했으며, 1~3만원대 ‘저가’ 선물세트의 인기가 특히 높았다. 이외에도 선물 포장에 필요한 ‘보자기’, ‘여아한복 1~4호’, ‘4~5세 남아한복’ 등 하루가 다르게 쑥쑥크는 아이들을 위한 명절용 전통의상, 설 연휴기간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중고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 피싱 조직처럼 해외에 기반을 두고 대표통장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하는 등 중고 거래 사기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외부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세심한 판단이 중요하다. 되도록 대면 거래를 선택하되 판매자·구매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보내는 물품 사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입금 전 반드시 물품의 진위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나온 물품은 주의해야 한다. 또 판매자가 외부 사이트 혹은 링크 접속을 유도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입금 계좌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해당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형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보호 정책 및 해결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고팔 때는 내가 거래하려는 물품이 ‘거래 금지 품목’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부터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명절 선물로 종종 주고받는 ‘주류’의 경우 현행법상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주류 판매 및 제조 혐

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료나눔(수여)도 판매로 간주된다. 대용량 식품, 화장품 등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지난해 5월 8일부터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금액은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실온·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한된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가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법 위반 행위

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당근마켓에서도 가품 판매를 대놓고 암시한 판매의 경우 가품 판매 게시글의 패턴을 학습한 머신러닝 기술, 키워드 필터링 등을 활용해 게시글을 관리하는 등 가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품을 정품인 척 속여 판매한 경우는 ‘사기’에 해당된다.

열차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거래’에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7일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최근 압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 10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압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레일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압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압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설 차례상’ 전통시장 28만7천원·대형마트 36만원

소진공, 27개 제수용품 가격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8만7606원, 대형마트는 평균 36만986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만3380원(20.3%)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46.4%), 수산물(34.8%), 육류(25.6%)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이외에도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17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간도라지(66.7%), 고사리(64.1%), 동

태포(54.3%), 대추(50.0%), 숙주(40.4%), 쇠고기탕국용(3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전통시장의 27개 제수용품 중에서 지난해 설명절 가격 대비 11개 품목은 상승했으며, 16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승 상위 3개 품목은 무(98.1%), 돼지고기 다짐육(10.3%), 떡국 떡(9.7%) 등의 순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고 가격하락 상위 3개 품목은 사과(-27.8%), 단감(-19.2%), 대파(-17.0%) 등의 순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월 200만원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신세계, 리틀그라운드 팝업 광주신세계가 오는 23일까지 본관 1층 행사장에서 키즈 컬렉션인 ‘리틀 그라운드’의 팝업을 열고 다양한 신학기 가방을 선보인다. 이번 팝업에서는 본 매장 및 연계해 ‘보보 쇼츠’, ‘윙겐’, ‘타오’, ‘룰라비’ 등 브랜드들의 신학기 책가방과 의류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팝업 행사장에서는 스쿨백 캠페인 촬영 현장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듯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추첨을 통해 2025년 s/s 신상품을 증정하는 ‘오늘은 나도 모델 리틀이’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이주배경 학생 ‘겨울방학 다다캠프’ 성료

금융교육·진로 설계 등 체험 제공

광주은행은 최근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3박 4일간 ‘다(多)채로운 다(多)문화 캠프(이하 ‘다다캠프’)’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부터 여름, 겨울 방학 시즌마다 캠프를 진행해 이번에 4번째를 맞이한 ‘다다캠프’는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JB금융그룹의 핵심사회공헌 사업이다.

특히, 이번 캠프는 호남지역 이주배경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인기 도서 ‘WHY’의 저자 조영선 작가를 초청해 과학적 사고를 촉진하는 강연,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보드게임 만들기, 꿈 Dream 프로그램을 통한 꿈 그리기, 그리고 ‘생각정리클래스’ 복수환 대표를 초청해 진로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



광주은행은 최근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3박 4일간 ‘다(多)채로운 다(多)문화 캠프’를 진행했다.

광주은행 제공

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국악 비보잉 ‘라스트릿크루’ 팀의 공연을 관람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마지막 날에는 프랑스 국악인 ‘마포 로르(Mafo Laure)’를 초청해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와 국악의 매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경험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이번 캠프에는 광주은행 소속 스포츠단 ‘텐텐(Ten Ten) 양궁단’, ‘비츠로

(VITZRO) 배드민턴단’이 재능기부로 참석해 양궁, 배드민턴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는 등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협동심과 집중력, 인내심을 배우고 건강한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다다캠프’를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2년 연속 50만대 ‘기아 광주’ 응원

이상갑 부시장, 광주공장 방문 “미래차 부품 개발·인증 지원”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0일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달성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글로벌 완성차 생산공장으로 발돋움을 성원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인공지능산업실장과 장들과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노사화합으로 큰 성과를 이룬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임·직원들을 축하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내수 18만1665대, 수출 33만2117대 등 51만

3782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는 2014년(53만8896대), 2015년(53만3483대), 2023년 54만1100대에 이어 역대 네 번째 50만대 생산을 돌파한 것이며,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부시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는 광주시와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지역 기업들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 자동차 연 60만대 생산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완성차 생산공장의 지원뿐 아니라 지역 부품업체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장비를 신규로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EV)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3년 빛그린국가산단에 조성된 부품인증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갖췄으며 올해 지역 부품업체가 직접 완성차를 설계해 제작·생산할 수 있는 공동협업센터가 들어서는 등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